

**The Gospel of Mark**

Sermon 20: Sermon notes

Title: "A life restored and a woman healed - part 1"

Scripture: Mark 5:21-34

Date preached: January 15<sup>th</sup> 2023**Scripture: Mark 5:21-34**

**21** Now when Jesus had crossed over again by boat to the other side, a great multitude gathered to Him; and He was by the sea. **22** And behold,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came, Jairus by name. And when he saw Him, he fell at His feet **23** and begged Him earnestly, saying, "My little daughter lies at the point of death.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that she may be healed, and she will live." **24** So *Jesus* went with him, and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and thronged Him. **25** Now a certain woman had a flow of blood for twelve years, **26** and had suffered many things from many physicians. She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 better, but rather grew worse. **27**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garment. **28** For she said, "If only I may touch His clothes, I shall be made well." **29** Immediately the fountain of her blood was dried up,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healed of the affliction. **30** And Jesus, immediately knowing in Himself that power had gone out of Him,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said, "Who touched My clothes?" **31** But His disciples said to Him, "You see the multitude thronging You, and You say, 'Who touched Me?'" **32** And He looked around to see her who had done this thing. **33** But the woman, fearing and trembling,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told Him the whole truth. **34**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affliction."

21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다. 많은 군중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22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죽어 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4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며 서로 밀쳤다.

25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26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27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 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28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9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님은 곧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이 이렇게 서로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2 그러나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자. 33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34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happened last time.

Last week we concluded the story of Jesus healing the Gadarene demoniac. Jesus along with His disciples had travelled over the Sea of Galilee to the eastern shore to an area mostly populated by

Gentiles. No sooner have they landed than they are confronted by a man, maybe two men (Matt 8L28) who are demon possessed. Mark only tells us about the one man, but as I said before this doesn't mean there were not two. His focus is just on one of the men. Perhaps the man most badly afflicted by many unclean spirits.

The demons recognise who Jesus is and rightly understand that He has power and authority over them. They plead with Him not to send them out of the country. Their plea here I think can be understood as them asking not to be sent prematurely into the abyss or the bottomless pit. This is the final destiny for all those angels who rebelled against God. The demons of course want to stay on earth where they can cause mischief and harm. Therefore the demons propose to Jesus what they regard as a good compromise. Knowing that Jesus will not permit them to continue possessing the man they ask to be sent into a herd of pigs grazing nearby. Why they would want this has puzzled many bible readers over the centuries. I cannot give you a definite answer. We just have to accept that there are many things about the spiritual realm that remain a mystery. Perhaps for a demon any flesh host is better than remaining in spirit form. Possibly they thought that they would at least be able to stay in the area and would basically escape punishment. The Lord Jesus of course had no intention of allowing them to stay and cause more misery.

Jesus gives the demons His permission to enter the herd of pigs. There were approximately 2000 pigs in this large herd. The impact the demons have upon the pigs is instant and dramatic. The pigs race down a steep incline and into the sea where they all drown.

The men who tended the pigs were suitably shocked. These men were probably not the owners of the pigs but rather those hired to feed and care for them. They hurried off to tell the people in the nearby towns what had happened. Not surprisingly this news is intriguing. Many head off to see what has happened for themselves. When they arrive they are surprised to see the demon possessed man clothed, sitting and in his right mind. Surely this is cause for these people to rejoice. This demon possessed man had been a nuisance and a potential threat for some time. But no, Mark tells us they were afraid. Here they were confronted by something they could not comprehend. Something that lay beyond a natural or easy explanation. Who had the power to do such amazing things? This was a question they seemingly did not want to ask. All they wanted was for Jesus to leave. They plead with Him to depart immediately. What a wonderful opportunity these people lost. How might their lives have been different if they had sat like the man once possessed at the feet of the Lord Jesus. The Lord Jesus' great desire is to have a close and loving relationship with us but He never stays where He is not wanted. His gift of salvation is free, but not one that is forced upon anyone.

As Jesus is leaving the formerly possessed man asks to be taken along. He wants to be near to the man who had saved him. Jesus had a number of followers aside from the disciples who travelled around with Him serving in various ways. However this man will not join this team. Jesus has another more important plan for him. He is to go back to his family and friends and tell them how God had blessed him.

Sometimes we have a tendency to look down upon Kingdom work that lacks glamour or excitement. We think that important missionaries are the ones trained and sent out to exotic foreign locations. We sometimes forget the vital work that needs to be done in our homes, workplaces and local communities. The Lord Jesus knew how effective this man's testimony would be. He would be witnessing to people who had seen how the demons had tormented him. Now though he was healed and better, God had truly blessed him. What an advertisement he would be of God's amazing grace to the people in that region. The same may be said for you. Often when friends or

family members see how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has changed us for the better it makes a deep and lasting impact.

Today we pick up the story as Jesus again gets out of a boat.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복습해 봅시다.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가다라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동쪽 해안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착륙하자마자 한 사람, 아마도 귀신 들린 두 사람(Matt 8L28)과 대면하게 됩니다. 마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전에 말했듯이 이것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초점은 남자 중 한 명에게만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더러운 영들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그분이 그들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그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의 탄원은 너무 이르게 심연이나 무저갱으로 보내지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천사들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악귀들은 물론 그들이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지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그들이 좋은 타협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 제안합니다.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돼지 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예수께서 그들이 계속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 수세기에 걸쳐 많은 성경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로 남아 있는 영적 영역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도 악마에게는 육신의 주인이 영혼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적어도 그 지역에 머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그들이 머물면서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도록 허용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에는 약 2000 마리의 돼지가 있었습니다. 악마가 돼지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극적입니다. 돼지들은 가파른 비탈길을 달려 바다로 들어가 모두 익사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돼지 주인이 아니라 돼지를 먹이고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가까운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이 흥미롭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악귀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이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이 악령 들린 사람은 얼마 동안 골칫거리이자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Mark는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습니다. 자연스럽거나 쉬운 설명 너머에 있는 것.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묻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즉시 떠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멋진 기회입니다. 그들이 한때 주 예수님의 발치에 사로잡혔던 사람처럼 앉았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입니까? 주 예수님의 큰 소망은 우리와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는 곳에 결코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선물은 거저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강요되는 선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이 데려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그분과 함께 다니던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이 팀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위한 또 다른 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는지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매력이나 흥분이 결여된 왕국 사업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이국적인 외국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정,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잊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셨습니다. 그는 악귀들이 어떻게 그를 괴롭혔는지 본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치유되고 나아졌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광고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종 친구나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를 더 좋게 변화시켰는지 볼 때 그것은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배에서 내리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 spoke a few weeks ago about one of Mark's interesting narrative techniques. I described it as the split screen approach. You can easily picture a television screen with two programs being shown at the same time on the same screen. This is what we have in the passage we will begin today and conclude next week. We have the story of Jairus' sick daughter intermingled with the story of the woman afflicted by a constant flow of blood. It is a very clever and effective way of telling these two wonderful stories.

Before looking at the passage it is worth taking a moment to consider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miracles. Some claim that Mark has just put the stories together and that they are not chronological. Or to say it more plainly that though they both happened they didn't occur simultaneously as he presents them. Is there any truth to this claim? Well we do know that at times the gospel writers did arrange their material in a certain way in order to emphasise a particular point. However in this case it's worth noting that both Matthew and Luke record these events in the same order. Let us then briefly touch on the similarities.

저는 몇 주 전에 Mark의 흥미로운 내러티브 기술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할 화면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화면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표시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시작하여 다음 주에 결론을 맺을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병든 딸의 이야기와 끊임없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멋진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우 영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두 기적 사이의 유사점을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는 Mark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일 뿐 연대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더 분명하게 말하면 둘 다 발생했지만 그가 제시한 대로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장에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음서 저자들이 특정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배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같은 순서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유사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Both miracles involve females.
2. In both cases those seeking "salvation" fall at Jesus feet.
3. In both cases the person healed is called "a daughter."
4. The number 12 features in both cases. The little girl is 12 years old, the woman has suffered for 12 years.
5. Both females would have been judged as being ritually unclean. The woman because of her flow of blood. The girl because she is dead.
6. Touching, or physical contact features in both cases. The woman touched Jesus' clothes. Jesus

Himself touched the girl.

7. Fear and faith is mentioned in both miraculous healings.

Let us then not delay in looking at these accounts.

1. 두 기적 모두 여성과 관련된다.
2. 두 경우 모두 “구원”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3. 두 경우 모두 고침을 받은 사람을 "딸"이라고 합니다.
4. 두 경우 모두 숫자 12가 특징입니다. 어린 소녀는 12 살이고 여자는 12 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5. 두 여자 모두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여자는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 소녀는 죽었기 때문이다.
6. 두 경우 모두 접촉 또는 신체 접촉 기능.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소녀를 만지셨습니다.
7. 두 가지 기적적인 치유에 두려움과 믿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는 일을 지체하지 맙시다.

**21 Now when Jesus had crossed over again by boat to the other side, a great multitude gathered to Him; and He was by the sea.**

We left Jesus last time on the ea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in the region of the Gadarenes. He has now travelled back across the sea to the western shore. This places Him once again in Jewish territory. He has been ministering in this area of Galilee for some time. His notoriety has spread far and wide. This explains why when He returns He is again surrounded by large crowds. Let us read on.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을 가다라 사람의 땅인 갈릴리 바다 동편에 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다를 건너 서쪽 해안으로 다시 여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다시 한 번 유대 영토에 두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갈릴리의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의 악명은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돌아오셨을 때 그가 다시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2 And behold,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came, Jairus by name. And when he saw Him, he fell at His feet 23 and begged Him earnestly, saying, “My little daughter lies at the point of death.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that she may be healed, and she will live.”**

Mark introduces here to an important character in one of the healing miracles. It is one of the synagogue rulers named Jairus. A synagogue ruler was not a priest. Rather, they were laymen who had the responsibility of organising the worship, dealing with administration and maintaining the building. It's somewhat unusual that a personal name is recorded. Most of the healing stories are anonymous. Typically, we just read that an unnamed person came up to Jesus and was healed or exorcised.

So why might Mark have included this detail? I suspect that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name's meaning. The name Jairus, which is the Greek form of the Hebrew Jair means "he will give light or awaken." That is highly appropriate in this story.

When Jairus approaches Jesus he falls at his feet. A synagogue ruler was a person of some importance. He was a man that would be admired or respected in the community. Therefore his

humble act here is noteworthy. Commonl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and authority become prideful. They begin to see themselves as self import and superior. But his act of submission here is borne out of desperation. He comes not as one seeking healing for himself but in this case for his daughter. As a loving father we must assume that he has tried every conceivable thing to help his daughter. That every doctor has been consulted, and every form of treatment tried. Nothing has worked. She is almost at the point of death, literally taking her last breaths. This is highlighted by the urgency he has in trying to persuade Jesus to come. He demonstrates great confidence that Jesus can heal his daughter even at this critical stage. However his faith is measured somewhat in his belief that Jesus needs to be present and to physically lay His hands upon her. This was typically how healings were performed in the ancient world. The belief, or superstition was that the healer healed through the power of physical contact. You may be reminded here of the healing of the nobleman's son recoded in John's gospel (John 4:46-54). He too sought and Jesus and wanted him to come in person.

The Lord Jesus was never bound by the constraints of geography. He could heal anyone, at any time from any place. Let us read on.

Mark 는 여기에서 치유의 기적 중 하나에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중 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배를 조직하고 행정을 처리하고 건물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평신도였습니다. 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치유 이야기는 익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고침을 받거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Mark 가 이 세부 사항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이 이름의 의미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Jair 의 그리스어 형태인 Jairus 라는 이름은 "그가 빛을 주거나 깨울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서 매우 적절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자 발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겸손한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권력과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중요하고 우월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복종 행위는 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치유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딸을 위해 온다.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가 딸을 돕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가 상담을 받았고 모든 형태의 치료가 시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마지막 숨을 쉬는 거의 죽음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오도록 설득하려고 애쓰는 시급함에서 강조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위급한 단계에서도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큰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가 현존해야 하고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손을 얹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 측정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치유가 수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믿음 또는 미신은 치유자가 신체 접촉의 힘을 통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귀족의 아들의 치유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요 4:46-54). 그도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이 직접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결코 지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 **24 So Jesus went with him, and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and thronged Him.**

The Lord Jesus agrees to go with Jairus. The large crowd decides to go along too. They sensed that something interesting or amazing was likely to happen. If we'd be there we would have followed along with this crowd. Lets see what happens next.

주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도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

면 우리는 이 군중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25 Now a certain woman had a flow of blood for twelve years, 26 and had suffered many things from many physicians. She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 better, but rather grew worse.**

Mark introduces us here to the second recipient of a healing in this account. She is described as a woman who had suffered with an issue or flow of blood for twelve years. That's a very long time to suffer with an illness. But to really understand how terrible her plight truly was I have to tell you about the Mosaic law. Let me read to you what it says in Leviticus 15:25-27.

마가는 이 기록에서 치유의 두 번째 수혜자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12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곤경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레위기 15:25-27 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5 'If a woman has a discharge of blood for many days, other than at the time of her customary impurity, or if it runs beyond her usual time of impurity, all the days of her unclean discharge shall be as the days of her customary impurity. She shall be unclean. 26 Every bed on which she lies all the days of her discharge shall be to her as the bed of her impurity; and whatever she sits on shall be unclean, as the uncleanness of her impurity. 27 Whoever touches those things shall be unclean; he shall wash his clothes and bathe in water, and be unclean until evening.**

According to the law excessive blood flow made a woman ceremonially unclean. Any furniture she touched was also deemed unclean. Even if other people touched anything that she had touched, they would be made unclean as well. What does this mean in practical terms? It meant she could play no part in any aspect of Israel's worship. She was a social outcast, a pariah. No Jew would want to be around such a person. This also probably applied to her husband. Her issue of blood meant that sexual contact was prohibited. Therefore no children would be produced in the marriage. So the likelihood is that he had divorced her, and she now lived alone. She had been living in this condition for twelve years.

Naturally she had been to see every doctor she could. She had spent every penny she possessed seeking a cure to this terrible affliction.

According to one commentary I consulted the Talmud gave at least eleven possible cures for her ailment. Probably she had tried them all. Sadly no physician had been able to help her. Her last hope rested in the Lord Jesus. Let us continue.

율법에 따르면 과도한 혈류는 여성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진 가구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가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져도 그들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어떤 측면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추방자, 천민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편에게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혈액 문제는 성적 접촉이 금지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녀와 이혼했고 그녀는 이제 혼자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태로 12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고통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소유한 모든 돈을 썼습니다. 한 논평에 따르면 나는 탈무드가 그녀의 질병에 대해 적어도 11 가지 가능한 치료법을 제시했다고 상담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들 모두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주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합시다.

**27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garment. 28 For she said, “If only I may touch His clothes, I shall be made well.” 29 Immediately the fountain of her blood was dried up,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healed of the affliction.**

News about Jesus had reached this woman. She may have come from some distance in order to seek the Lord out. That may explain why she was able to move freely or unchallenged through the crowd. Her story is one of really great faith. She firmly believed that Jesus' power was great enough to heal her. No fancy ritual needed to be performed. Just the smallest thing, the touching of any piece of His clothing was sufficient.

To our great shame how weak our faith often is by comparison to this woman. How often we question or doubt God's ability to do something in our world.

One of the questions asked sometimes is why wouldn't she just approach Jesus and ask to be healed? Well, as we have just seen her constant flow of blood made her unclean. A person that others didn't want to be around. Presumably touching her in a crowd would be sufficient to make you unclean. No doubt it was a cause of great shame and embarrassment to her. Therefore she wants to be healed, but in secret.

So she works her way carefully through the crowd. Closing in on our Lord. When she is close enough she stretches out her hand and touches His garment. Her confidence and faith is instantly rewarded. The blood flow ceased, and she knew that she was fully and completely healed. Let us read on.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여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찾기 위해 먼 곳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군중 속을 자유롭게 또는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치유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 그분의 옷자락이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의 믿음은 종종 이 여자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심합니다. 때때로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왜 그녀가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까? 글쎄요, 우리는 그녀의 끊임없는 피의 흐름이 그녀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금 보았듯이.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마도 군중 속에서 그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더럽히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그녀에게 큰 수치와 난처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은밀히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군중 속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갑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녀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그녀는 손을 뻗어 그분의 옷을 만집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믿음은 즉시 보상을 받습니다. 혈류가 멈췄고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30 And Jesus, immediately knowing in Himself that power had gone out of Him,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said, “Who touched My clothes?” 31 But His disciples said to Him, “You see the multitude thronging You, and You say, ‘Who touched Me?’ ”**

Mark tells us something very interesting here about the nature of the healing. It is that Jesus performed this miracle without consciously being aware of His own participation. The miraculous healing happened instantaneously, and both Jesus and the women knew it had happened. Jesus knows this because he recognises that power has been drawn from His body. This is the only time in the bible that this concept is mentioned. However it does mesh with the idea often conveyed in the



gospels that Jesus needed at times to escape the crowd, and take time to recuperate and be in prayer. So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the miraculous signs did draw power or energy from our Lord and saviour. So looking around Jesus asks who touched His clothes.

When I read verse 31 it always makes me chuckle. Some people say that bible lacks humour or comedy. But for me verse 31 is a perfect comedic retort. Jesus is surrounded by people pushing and jostling. All seeking to get close or touch Him. So to ask the crowd who touched Him seems ridiculous to the disciples. Presumably dozens of people had touched or bumped against Him. Of course, they do not know that this touch has led to someone being healed.

But Jesus here is looking for someone who has done something more than simply brush past Him. Someone has touched Him in a special way. A way that has drawn power from Him. Let us read on.

마가는 여기에서 치유의 본질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참여를 의식하지 않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예수님과 여인들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십니다. 성경에서 이 개념이 언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때때로 군중을 피하고 회복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복음서에서 자주 전달되는 생각과 맞물립니다. 따라서 기적적인 징조가 우리 주님과 구세주로부터 능력이나 에너지를 끌어낸 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다. 31 절을 읽으면 항상 웃음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유머나 코미디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31 절은 완벽한 코미디 레토르트입니다. 예수님은 밀치고 밀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두 그분에게 가까이 가거나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진 군중에게 묻는 것은 제자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아마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분을 만지거나 부딪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접촉이 어떤 사람을 고침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을 스쳐지나가는 것 이상의 일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분에게서 능력을 끌어낸 방법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 **32 And He looked around to see her who had done this thing.**

The translation of this verse rather misses the urgency of Jesus. We should really read it as He KEPT looking around. He really desired to find out who it was who had touched Him.

Why this urgency? Why not just be content that the woman had received the desired healing. It's because Jesus wanted her to truly understand what had happened. He wanted to bolster the faith that clearly she had. She had not been made well on the basis of her superstition. She was made well because of the faith she had in the Messiah. Let us conclude our study by looking at the final two verses.

이 구절의 번역은 오히려 예수님의 긴급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He KEPT 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정말 읽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급합니까? 그 여자가 원하던 고침을 받았다고 그냥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일어난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녀가 가진 믿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미신에 기초하여 건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33 But the woman, fearing and trembling,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told Him the whole truth. 34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affliction."**

The woman realises that Jesus will not give up in His desire to discover her. Clearly she had hoped to quietly make her escape through the crowd. So some may think that having her come and fall at Jesus feet is just embarrassing her. That she is being made to go through an uncomfortable ordeal. This was not the case as we shall see.

Why was she fearful and trembling? As I said before as someone who was ritually unclean she knew that she should not be touching anyone. So probably she thought she was about to be shamed, and publicly rebuked. This of course was not the Lord Jesus' intent. What He actually wanted to do was praise and reward her for her faith. Whilst it was true that she felt within herself that she had been healed might not doubt arise in the future. What about when some days, weeks or months had passed. Might she not worry that this affliction may reoccur. So what the Lord wanted to do was comfort and reassure her. So Jesus told her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affliction.”** Jesus wanted to tell her personally that she was completely and permanently healed.

He also wanted her to know that it was her faith in Him that had been the cause. What a comfort this must have been. It's hard for us to imagine what a life she was delivered from. Twelve long years of pain, hurt and alienation ended in an instant. Only the Lord Jesus Christ has the power to do that.

그 여자는 예수님이 그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군중을 뚫고 조용히 탈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녀를 부끄럽게 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불편한 시련을 겪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될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녀는 두렵고 떨렸습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서 전에 말했듯이 그녀는 아무에게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곧 수치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 그녀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나왔다고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몇 일,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났을 때는 어떨습니까? 그녀는 이 고통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녀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그녀가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2년의 기나긴 세월, 아픔과 상처와 소외는 한순간에 끝났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 1 Come to Jesus first

We read today about two people coming to seek out the Lord. Both wanted something from Him. The woman wanted healing for herself. Jairus wanted healing for his daughter. We know that this woman had spent years and all her money seeking a cure. Probably the same was also true for Jairus. Now obviously Jesus had not been healing sick people for the previous 12 years. So perhaps it's a little unfair to say that the woman came to Jesus as a last resort. The same could be said for Jairus.

The point I am making here though is when do we turn to Christ? When we have an issue, problem

or crisis what do we do? Most of us try to fix things ourselves. We tend to have an inflated opinion of our own abilities. We believe that we can handle or fix the problem. How much unnecessary anxiety and worry do we burden ourselves with. How much easier things would be if we sought out Jesus first. He always desires us to seek Him out and share our burdens with Him. Let us then come to Jesus first rather than when we have exhausted every other possible option.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으러 오는 두 사람에 대해 읽었습니다. 둘 다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치유를 원했습니다. 아이로는 딸의 치유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이 치료법을 찾기 위해 수년과 그녀의 모든 돈을 소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난 12년 동안 아픈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 문제 또는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분은 항상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과 우리의 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가능한 선택을 소진했을 때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 **2 The difference between bumping and touching**

I don't like being in crowded places. I find it very annoying to be jostled or pushed. One of the many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UK and Korea is related to touching people in crowded places. In Korea, it is not generally considered rude to push people to one side. I have had the experience in a crowded situation of someone gently, but firmly pushing me aside. I find it a little rude but I have to accept that this is Korea and a part of their culture. However if you are a Korean listening to this I would not advise you do this in a busy place in the UK. This is one aspect of your culture that will not be accepted in London, Birmingham or Manchester. Unless that is you fancy being angrily confronted or physically assaulted.

Jesus was constantly surrounded by large crowds. He was continually being pushed, jostled and probably grabbed. But when the woman reached out her hand there was a difference. She reached out to touch the Lord. She sought an intimate and life changing connection with Him. This was very different to those bumping, jostling or grabbing for Him. You see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umping and touching.

When you come to church what are you hoping for? That you might bump into Jesus. I hope not. But sadly that is the reality for many nominal Christians. They come to church, sing worship songs, listen to the sermon but only ever bump into Jesus. What we really want is to touch Jesus. To reach out to Him in faith and make that important connection. So I encourage you today to be more deliberate, more intentional. Seek out the Lord Jesus. Desire to be close enough to touch Him. And when you do, never let go.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게 싫어요. 나는 밀거나 밀치는 것이 매우 짜증난다. 영국과 한국의 많은 문화적 차이 중 하나는 혼잡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무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미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나를 밀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한국이고 그들의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

신이 이것을 듣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영국의 번잡한 곳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런던, 버밍엄 또는 맨체스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당신 문화의 한 측면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화를 내거나 신체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밀리고 밀치고 아마도 붙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주님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그분과의 친밀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연결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위해 부딪치고, 밀치고, 붙잡는 사람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부딪히는 것과 만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올 때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하지 희망. 그러나 슬프게도 그것이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지만 예수님과만 마주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서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더 신중하고 더 의도적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절대 놓지 마십시오.

